

2024
고2 문학
신사고

고2 문학 신사고 | 3(1)(1) 속미인곡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낙월’, ‘구준비’, ‘구름’, ‘안개’, ‘브람’, ‘물결’의 의미를 주로 물어보므로 해당 시어의 의미를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작가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의 애절한 심정을 여성 화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상의 특징은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보기>를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도 출제되므로 <보기>에 제시된 작가 소개, 창작 배경, 두 여성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얻는 효과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흥더이고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디하야 니별(離別)하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눈을 보라 가시논고

㉠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즉헌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흥똥디

반기시논 늦비치 네와 었디 다르신고

누어 심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 내 몸의 지은 죄 뉘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 글란 심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뉘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그튼 얼굴이 편히실 적 몇 날일고

㉣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었디하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누라서 뉘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죠석(朝夕) 뉘 네와 궂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었디 자시논고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쟈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닉일이나 사름 올라
내 막옴 돌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쟈말고
잡거니 밀거니 뉘픈 뉘히 올라가니
구름은크니와 안개논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었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그의 가 빈 길히나 보라 하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디 가고 빈 빈만 걸렸논고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논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흥더이고
모첨(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풋음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쉼의 님을 보니
옥(玉) 그튼 열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셰라
막옴의 머근 말슴 슬그장 숲쟈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흥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었디 쉼똥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쉼이로다
출하리 식어디어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 각시님 돌이야크니와 구준비나 뉘쇼셔

-정철, 「속미인곡」

1. 윗글의 ‘낙월’과 ‘구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낙월’은 멀리서 잠깐 비추다 사라지는 존재로, ‘구준비’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 ② ‘낙월’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동시에 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내포하고 있다.

- ③ '구준비'는 임의 웃을 적시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 '낙월'에 비해 적극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 ④ '구준비'는 임에 대한 그림고 애타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려는 간절함을 내포하고 있다.
- ⑤ '낙월'과 '구준비'는 모두 화자의 외로움을 반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2.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화자와 '네'는 우연히 처음 만난 사이임을 알 수 있다.
- ② ㉡를 통해 화자가 '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화자는 '님'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있다.
- ④ ㉣를 통해 사계절 내내 화자가 '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화자는 '님'을 의미하는 '돌'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3. 윗글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름'과 '안개'는 임과 화자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 ② '빈 빈'와 '모첩(茅簷) 촌 자리'는 화자의 외로운 상황을 보여 준다.
- ③ '일월'과 '디는 히'는 화자가 곁에 없어서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임을 상징한다.
- ④ '눅픈 뉘히 올라가니'와 '빅 길히나 보랴 흐니'는 임과의 거리를 좁혀 보려는 화자의 노력을 보여 준다.
- ⑤ '산천이 어둡거니'와 '지척(咫尺)을 모르거든'은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명의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소박하고 진솔한 표현이 돋보인다.
- ③ 임을 염려하는 마음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④ 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공간의 이동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과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철의 「속미인곡」은 작가가 당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조정에서 쫓겨나서도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의 애절한 심정을 여성 화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① '빅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으로, 임금이 계신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구름'은 화자와 임의 사이를 방해하는 존재로, 작가의 당시 정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일월'은 화자가 보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 작가가 충정을 다하고자 하는 임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모첩(茅簷) 촌 자리'는 화자가 사는 곳으로, 조정에서 쫓겨나 있는 작가의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쌈'은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으로, 작가가 잠시나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음을 알 수 있다.

신유형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 작품의 표현 및 형식상 특징을 묻는 문제,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문학 이론을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양반 가사로서 정격 가사에 해당합니다. 순우리말을 절묘하게 구사하였으며 두 여인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됩니다. 임금에 대한 충정을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작품의 특징으로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흥더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니별(離別)하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어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즉헌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턱야 어즈러이 흥똥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생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흥니
 내 몸의 지은 죄 되 마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롬이라 허을허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생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톤 얼굴이 편흥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뵈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죠석(朝夕) 뵈 네와 ㉡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흥니
 오늘도 거의로다 닉일이나 사롬 올가
 내 마음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쟝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뵈히 올라가니
 구름은㉣니와 안개논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러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근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흥니
 북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샨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논고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흥더이고
 ㉡모첨(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풋좁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썸의 님을 보니
 옥(玉) ㉢톤 열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마음의 머근 말슴 슬꺾장 솟자 흥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흥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흥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엇디 쉰똥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엇븐 그림재 날 조출 썸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어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정철, 「속미인곡」

6.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와 달리 시적 화자가 고립되어 있는 공간이다.
- ② ㉡는 ㉢와 달리 시적 화자가 소망을 이루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③ ㉢는 ㉣, ㉤와 달리 시적 화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공간이다.
- ④ ㉤와 ㉥는 시적 화자가 임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간이다.
- ⑤ ㉢~㉤는 시적 화자의 비극적 상황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7.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멀리서 바라보는 소극적 사랑을 의미한다.
- ② ㉠은 ㉡와 달리 중심 화자의 화신으로, 중심인물의 의지가 반영된 시어이다.
- ③ ㉡는 임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 사랑으로, 화자의 슬픔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는 중심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임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보조 화자가 제안한 방법이다.
- ⑤ ㉠은 시각적 심상으로, 임과 함께 하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는 소재이다.

8. 소재의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한 것은?

- ① 구름: 임과 화자 사이를 막는 방해물
- ② 바람: 위태롭게 흔들리는 화자의 마음
- ③ 빈 비: 임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 사랑
- ④ 낙월: 긴 외로움에 지쳐버린 화자의 마음
- ⑤ 구름비: 임을 멀리서 바라보는 소극적 사랑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흔더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니별(離別)하고

히 다 더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어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죽헌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흐똥쎄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심각하고 니러 안자 헤어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뉘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심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뉘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를 그튼 얼굴이 편히실 적 몇 날일고
 춘하고열(春寒苦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뉘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뉘 네와 굿티 세시

노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뉘일이나 사름 올가

내 막음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쟝말고

잡거니 밀거니 뉘픈 뉘히 올라가니

구름은크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그의 가 빈 길히나 보라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동경 된더이고

샤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렛논고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모첩(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풋좁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쉼의 님을 보니

옥(玉) 그튼 열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막음의 머근 말슴 슬긱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하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어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엇디 쉰똥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크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정철, 「속미인곡」

9.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는 갑녀로, 을녀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 운명론적 사고관이 드러나 있다.
- ③ ㉢: 화자의 외로움을 잘 드러내 주는 객관적 상관물이 드러난다.
- ④ ㉣: 재회의 소망과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낸다.
- ⑤ ㉣: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동일하게 나타나, 정격 가사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10. 윗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중심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를 의미한다.
- ② ㉡: 보조적 화자가 주인공 화자에게 위로해 줌을 의미한다.
- ③ ㉢: 임이 진지를 잘 드시고 계심에 안도감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 ④ ㉣: 입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 임과의 거리를 좁혀 보려 노력하지만, 잘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디하야 니별(離別)하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어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 즉훈가마논
 었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흐똥션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르신고
 누어 심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히니
 내 몸의 지은 죄 뉘기 빠혀시니
 하눌히라 원망하며 사롭이라 허물허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심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뉘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뉘기 얼굴이 편히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었디하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뉘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뉘 네와 궂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었디 자시논고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히니
 오늘도 거의로다 뉘일이나 사롭 올가
 내 막음 돌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쟝말고
 잡거니 밀거니 뉘픈 뉘히 올라가니
 구름은크니와 안개논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었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뉘기 가 빈 길히나 보라 히니
 바람이야 뉘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샹공은 어디 가고 빈 뉘만 걸렛논고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논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헌더이고
 모첩(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꾀좁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쉼의 님을 보니
 옥(玉) 뉘기 얼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셰라
 막음의 머근 말슴 슬궂장 숲자 히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하며
 정(情)을 뉘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히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었디 쉼뉘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썸이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크니와 구준비나 뉘쇼셔
 -정철, 「속미인곡」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임과 이별한 처지임을 알 수 있다.
- ② ㉡: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 화자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소연하는 인물이다.
- ③ ㉢: 화자는 이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 화자의 운명론적 가치관이 나타나 있다.
- ⑤ ㉤: 작가가 관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임금님을 곁에서 모셨음을 알 수 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흥더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 허야 니별(離別) 흥고

㉠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즉훈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흥똥똥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 흥고 니러 안자 헤여 흥니
 내 몸의 지은 죄 뉘 마티 빠혀 흥니
 하늘히라 원망 흥며 사름이라 허물 흥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뉘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ㄱ툰 얼굴이 편 흥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 허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뉘섯 흥고
 죽조반(粥早飯) 죠석(朝夕) 뉘 네와 ㄱ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님다히 쇼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쟈 흥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막음 둘 뒤 업다 어드러로 가쟈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뉘히 올라가니
 구름은 ㄱ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부라보라
 출하리 물 ㄱ의 가 빈 길히나 보라 흥니

부람이야 들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 흥고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쇼식(消息)이 더욱 아득 흥더이고
 모첨(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 허야 불갓 흥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 허야 풋짐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 허야 쉼의 님을 보니
 옥(玉) ㄱ툰 얼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셰라
 막음의 머근 말슴 슬 ㄱ장 슬 ㄱ자 흥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 흥며
 정(情)을 못다 허야 목이조차 메여 흥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엇디 쉼똥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부라보니

㉣ 어엇븐 그림재 날 조출 쉼이로다

출하리 식어디어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 각시 님 돌이야 ㄱ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정철, 「속미인곡」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애상적인 분위기
- ② ㉡: 감이 생각하는 이별의 사유
- ③ ㉢: 부정적 시대 상황
- ④ ㉣: 화자의 쓸쓸함 부각
- ⑤ ㉤: 정격 가사의 특징

【13~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흥더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 허야 니별(離別) 흥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즉훈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흥똥똥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A]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되기 빠혀시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밋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기 텃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뵈섯는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뵈 네와 기티 세시

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는고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뉘일이나 사름 올가
 내 마음 돌기 업다 어드러로 가짓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뵈히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기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뵈 뵈만 걸렸는고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한더이고
 모침(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야 불갓는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풋좁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쉼의 님을 보니
 옥(玉)기 텃 얼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마음의 머근 말슴 슬기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하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초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엇디 쉼뵈던고
 어와 허수(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쿠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정철, 「속미인곡」

1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색채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4. 윗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3음보에 3·4조, 4·4조의 음수율을 보인다.
- ②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한다.
- ③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고자 했지만 결국 알지 못했다.
- ④ 화자가 잠에서 깨자 창밖에 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다.
- ⑤ 중심 화자는 거리에서 보조적 화자를 만난 후, 높은 산, 물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15.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고백적인 어조로 비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역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임에 대한 그리움이 효과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⑤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활이나 감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낙월’은 멀리서 잠깐 입을 비추다 사라지는 존재로,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입과 함께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내포하고, ‘구준비’는 입의 웃을 적시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애타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려는 간절함을 내포하는 시어로, ‘낙월’과 ‘구준비’는 모두 화자의 외로움을 반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다.

① ‘낙월’은 멀리서 잠깐 입을 비추다 사라지는 존재로, 시각적 영향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구준비’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② ‘낙월’은 멀리서 잠깐 입을 비추다 사라지는 존재로,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입과 함께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내포하고 있다.

③ ‘구준비’는 입의 웃을 적시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애타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려는 간절함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낙월’에 비해 적극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④ 구준비’는 입의 웃을 적시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애타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려는 간절함을 내포하고 있다.

2. 정답 ④

④의 ‘춘한고열(春寒苦熱)’과 ‘추일동년(秋日冬天)’의 시어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님’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의 ‘어와 네여이고’를 통해 화자와 ‘네’는 우연히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를 통해 윗글의 화자는 ‘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보조적 화자가 중심 화자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님’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는 중심 화자가 죽어서라도 ‘둘’이 되어 입의 곁에 가고 싶다면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자, 보조적 화자가 중심 화자에게 비가 되어 입의 마음을 적

시라고 위로하는 부분이다. ‘둘’은 ‘님’을 의미하는 시어가 아니라 중심 화자의 분신이다.

3. 정답 ③

‘일월’은 임(임금)을 상징하며 ‘디논 히’는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간적 배경을 의미한다.

① ‘구름’과 ‘안개’는 입을 향한 화자의 마음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시어이다.

② ‘빈 비’와 ‘모첨(茅簷) 촌 자리’는 화자의 외로운 상황을 강조하는 시어 및 시구이다.

④ ‘눅픈 뉘히 올라가니’와 ‘비 길히나 보랴 흐니’는 입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화자가 입과의 거리를 좁혀 보려는 노력을 보여 준다.

⑤ ‘산천이 어둡거니’와 ‘지척(咫尺)을 모르거든’은 구름과 안개 때문에 입이 계신 곳을 볼 수 없는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정답 ③

윗글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으며, 중심 화자와 보조적 화자의 대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① 윗글은 중심 화자와 보조적 화자의 대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② 윗글은 주로 순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으며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소박하고 진솔한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④ 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이 ‘눅픈 뉘’와 ‘물?’로의 공간의 이동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⑤ ‘하늘히라 원망흐며 사름이라 허물흐랴’에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고, ‘어와 네여이고’, ‘어와 허스(虛事)로다’에서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5. 정답 ⑤

‘꿈’은 화자가 현실에서 꿈꾸던 입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오던된 계성(鷄聲)’에 의해 그 꿈이 좌절되었으므로, 작가가 잠시나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빅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으로, 임금이 있는 한양의 궁궐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구름'은 화자와 임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 즉 작가의 당시 정적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③ '일월'은 광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보고 싶어 하는 대상, 즉 작가가 충정을 다하고자 하는 임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모첩(茅簷) 촌 자리'는 임과 이별한 후 화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보기>에 따르면 조정에서 쫓겨나 있는 작가의 처지를 드러낸 것이다.

6. 정답 ⑤

㉠과 ㉡는 화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지만 '구름'과 '안개', '브람'과 '물결'에 가로막혀 화자의 소망이 좌절된다는 점에서 시적 화자의 비극적 상황을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는 임과 이별한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반영된 공간으로 화자의 비극적 상황을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①, ② ㉠과 ㉡는 화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다.

③ ㉢는 시적 화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반영된 공간이다.

④ ㉣는 화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며, ㉤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반영된 공간이다.

7. 정답 ③

㉠은 임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 사랑으로, 화자의 슬픔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애타는 화자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려는 간절함을 함축하고 있다.

① ㉡는 멀리서 잠깐 임을 비추다 사라지는 존재로, 멀리서 바라보는 소극적 사랑을 의미한다.

② ㉢는 ㉠과 달리 중심 화자의 분신(화신)으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염원하는 중심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시어이다.

④ ㉣는 중심 화자가 죽어서라도 '돌'이 되어 임의 곁에 가고 싶다며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자 보조 화자가 중심 화자에게 제안한 방법으로, 차라리 비가 되어 임의 마음을 적시라고 위로하는 부분이다.

⑤ ㉤는 임에게 시각적 영향만 줄 수 있는 화자의 분신으로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임과

함께 하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8. 정답 ①

구름: 임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임과 화자 사이를 막는 방해물의 의미를 지닌다.

② 브람: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③ 빈 비: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④ 낙월: 멀리서 잠깐 임을 비추다 사라지는 존재로, 멀리서 바라보는 소극적 사랑을 의미한다.

⑤ 구준비: 임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 사랑을 의미한다.

9. 정답 ③

㉠: 낮 동안의 화자의 행동들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① ㉡: 화자는 보조적 인물인 갑녀로, 중심 화자인 을녀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② ㉢: 갑녀가 을녀에게 임과 이별한 사연을 묻자, 을녀는 조물주의 탓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을녀의 운명론적 사고관이 드러나 있다.

④ ㉣: 재회의 소망과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의 맹세가 드러나 있다.

⑤ ㉤: 정격 가사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 부분으로,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10. 정답 ③

㉠: 화자가 임이 진지를 잘 드시고 계시는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① ㉡: '어리광과 교태(아양)'를 의미하는 시구로, 중심 화자가 생각하는 임과의 이별의 이유를 의미한다.

② ㉢: 보조적 화자가 주인공 화자에게 자책하지 말라며 위로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④ ㉣: '일월'은 임(임금)을 상징하는 시어로, 임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⑤ ㉤: 중심 화자는 임과의 거리를 좁혀 보려 노력하지만 '물결'이 어수선하게 치고 있으므로, 잘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부분이다.

11. [정답] ②

㉠: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로, 중심 화자의 하소연을 유발하는 인물이다.

① ㉠: 천상 백옥경(임금이 계시는 궁궐)과 이별하였다는 것을 통해 중심 화자가 임과 이별한 처지임을 알 수 있다.

③ ㉡: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흐뭇썬디'는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중심 화자는 이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④ ㉢: 보조적 화자가 중심 화자에게 임과 이별한 사연을 묻자, 중심 화자는 조물주의 탓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중심 화자의 운명론적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⑤ ㉣: '예전에 임을 모셔서 임의 일을 내가 알거니'라는 뜻으로, 작가가 관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임금님을 곁에서 모셨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12. [정답] ②

㉠: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흐뭇썬디'는 화자(을)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화자(을)는 이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① ㉠: 시간적 배경으로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 간신을 상징하는 구름과 안개 때문에 임이 계신 곳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부정적 시대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 임 없이 홀로 남겨진 화자의 쓸쓸함을 부각한다.

⑤ ㉣: 정경 가사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 부분으로,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13. [정답] ②

[A]에는 색채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중심 화자와 보조적 화자의 대화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상황(화자의 처지)이 '구름', '안개', '브람', '물결'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다.

④ [A]는 중심 화자가 보조적 화자에게 임에 대한

염려와 그리운 심정을 하소연하는 부분으로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A]에는 '엇디 다투신고', '사름이라 허물허랴', '되 네와 궂티 세시는가'와 같이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14. [정답] ③

윗글의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쟈 하니 / 오늘도 거의로다 닉일이나 사름 올가',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흔더이고'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고자 했지만 결국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① 윗글은 4음보에 3·4조, 4·4조의 음수율을 보인다.

② 윗글은 조선 전기 사대부 계층에 의해 우리말로 창작된 가사이다.

④ 화자가 잠에서 깨자 '어엇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라며 임이 아닌, 가엾은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⑤ 보조적 화자가 '데 가는 더 각시'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중심 화자가 어딘가로 가는 길에 보조적 화자를 만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심 화자는 보조적 화자를 만난 후 높은 산, 물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중심 화자가 '높은 산, 물가' 등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겪은 경험이나 정서를 보조적 화자에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 [정답] ⑤

윗글은 주로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중심 화자 자신의 생활이나 감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① 윗글에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윗글은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고백적인 어조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윗글에는 역설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윗글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16. [정답] ④

윗글의 화자는 '하눌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허랴'에서 임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자신의 잘못에 있